



오스트리아 안전여행 가이드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팀

2017년 4월

해외여행 사전 준비

👉 **여권:** 오스트리아 입국일로부터 6개월간의 여권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

👉 **로밍가능 휴대폰:** 공중전화를 찾기 힘드므로 만약을 대비해 로밍가능한 휴대폰 소지 권고. 여행전 „해외안전여행“ 앱 다운로드. 외교부 „동행서비스“ 가입.

👉 **ATM 인출 또는 신용카드 준비:** 현금은 가급적 필요할 때 마다 인출을 하되, 현금은 한 곳에 모두 보관하지 않고 가방, 상의, 하의 등 나누어서 보관.

👉 **해외여행자 보험:** 보험 가입시 반드시 보상범위, 보상받기 위한 구비증빙서류 확인.

👉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렌터카 이용시 반드시 필요. 해외에서는 동 증명서들의 발급이 불가능함.

👉 **여행일정, 숙소 및 숙소 연락처** 등을 여행 전 반드시 가족에게 알림.

동행서비스

동행 이용방법

1.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accompany/intro.jsp)에 신상정보·국내 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2.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3.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시 제공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점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셴겐조약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하여 셴겐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정으로 2006.10.13부터 시행되고 있음(영국 제외, 현재 유럽 25개국 가입)

비셴겐국민은 최초 입국일을 기준으로 180일 내에 최장 90일간 셴겐국내 무비자 체류 허용(25개 셴겐국 체류기간 합산)

셴겐조약국(25개국)

양자협정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셴겐조약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라트비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유의사항

☞ 체류기간 확인 증빙서류를 항시 소지(숙박, 항공권/열차승차권, 각종 영수증, 만료된 비자·체류허가증 등)하여 출입국 검문 또는 불시 검문 시 증빙서류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무사증)로 체류한지 90일이 다 되어 가는 데, 쉥겐국이 아닌 영국이나, 크로아티아에 몇 일 간 나갔다가 다시 오스트리아에 돌아오면 새롭게 90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쉥겐조약은 물론 양자협정에 의해 우리 국민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미 90일의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비쉥겐 국가에서 최소 90일 이상 체류한 이후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크로아티아 여행후 오스트리아 재입국을 위해 슬로베니아를 경유하게 되는데, 슬로베니아는 쉥겐조약을 우선으로 하므로 쉥겐국 체류 90일을 초과한 후 90일 간격을 두지 않고 슬로베니아에 입국할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2016.10.1에 오스트리아에 입국해 90일간 12.31까지 오스트리아에 체류했다면, 최초 입국일 10.1 기준으로 180일 이후인 2017.3.30이 지난 후에 오스트리아에 무비자 재입국 가능

Q 독일에서 여행으로 3개월간 있었습니다. 이후에 오스트리아에 여행하고 스위스를 경유해 우리나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양자사증면제협정에 의해 독일에 90일간 체류 후 오스트리아내에서는 1회에 한하여 90일까지 추가 체류 가능합니다. 단, 쉥겐조약을 우선으로 하는 스위스(또는 기타 쉥겐조약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를 경유해 출입국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여권

www.passport.go.kr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신분
증으로 여행 중 분실한
경우 심리적인 불안감이
발생함은 물론 여행 일
정을 변경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인 손해
가 큽니다. 여행 중 여권
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
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권관련 유의사항

여행 전 반드시 여권유효기간이 오스트리아 또는 슬로베니아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거부 당할 수 있음.

여권은 반드시 서명한 후 사용하고 미성년자의 여권에는 부모가 서명란에 정자로 자녀의 이름을 적어야 함.

여권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 절차

여권분실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1년 유효)하여야 함.

대사관 방문전 준비물

여권사진 2매: 각 기차역내에 증명사진발급기기(동전필요)이용 사진촬영 가능

여권발급수수료: 현금 13유로 50센트(카드사용 불가)

신속해외송금?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영사콜센터 계좌로 입금 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
여야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 신청
2.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절차 안내
3. 재외공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절차를 영사콜 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4. 국내 연고자는 영사 콜센터에 송금절차 문의
5. 영사 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경비 외 수수료)을 외교부 협력 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국내 연고자는 영사 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8. 영사콜 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9. 영사콜 센터는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통보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도난·분실 예방 및 대처요령

오스트리아의 치안은 아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역전, 열차 내, 카페, 호텔 로비 및 식당, 지하철 곳곳에서 지능적인 소매치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피해사례를 참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차 선반 위나 옆 좌석에 여권, 지갑, 휴대폰 등 귀중품이 든 가방을 두고 잠든 사이 또는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가방을 도난 당함.
- 대기 중 또는 기차좌석에 앉아있는 동안 또는 벤치에 쉬고 있는 동안 앞에 동전 여러 개를 떨어뜨린 후 이를 주워주며 도와주는 사이 옆에 둔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달아남.
- 벤치, 카페, 호텔 로비, 식당 등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동안 옆에 둔 가방을 가져감.
- 호텔에서 조식 중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 온 사이 좌석에 둔 가방을 훔쳐감.
- 옷에 이물질(페인트, 화장품, 아이스 크림 등)을 묻힌 후 닦아주겠다며 옷을 벗으라 함. 옷을 벗어 닦는 등 정신 없는 틈을 타 가방(여권, 지갑, 휴대폰 등)을 훔쳐감.
- 렌터카 내에 중요 물품을 두고 잠시 어디에 다녀온 사이 차를 파손하고 물건을 훔쳐감.
- 렌터카를 타고 주차 또는 출발시 모르는 이가 자꾸 말을 걸어 창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 뒷문을 열고 좌석에 둔 물건을 훔쳐감.

※ 휴대폰은 여행시 가장 중요한 긴급연락 수단이므로 데이터 로밍 및 통화 가능한 휴대폰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 전 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여권 분실 등 사고 발생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찾아 문의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2016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우리여행객의 숫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사관에 신고된 사건사고(도난·분실 등)은 2015년도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여권분실도 11%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기 도난·분실 다발장소를 참조하여 여권, 지갑 등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도난·분실 발생장소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벌며 오스트리아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만18세 이상 31세 미만의 대한민국 젊은이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연간 정원: 총 300명

비자발급신청: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서울), 주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대사관(브라티스라바), 주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대사관(류블랴나), 주독일 오스트리아 총영사관(원현)

비자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위 오스트리아 재외공관에 문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로 하는 최장 6개월의 비자입니다. 취업(노동)비자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 꼭 거주지 관할 공공고용서비스센터 (약칭: AMS, 독: Arbemitsmarktservice, 영: Public Employment Service)에 오스트리아 외국 인노동법 적용 예외대상이 되도록 "예외증명(Ausnahmebestaetigung)"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 예외증명서 없이 일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aut.mofa.go.kr) > 영사 > 워킹홀리데이 > 개별일자리정보 > 1번 참고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 www.whic.kr

병환시 대처 요령

여행중 갑자기 가족, 지인, 친구들 중 병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환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24시간 근무하므로 언제든지 방문가능하나 가정의의 경우 주중 정해진 진료시간에만 진료를 합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이나 가정의의 경우 방문시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진단서(Diagnose)와 진료 지불증빙서류를 지참, 귀국하여 해외여행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상내역에 대한 사항은 여행 전 보험가입 시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유럽에서의 진료비는 최소 150유로, 입원 등 수술 비용은 최소 1500 유로 이상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단체여행객

- 병환시 인솔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대(144)에 신고.

개인여행객

- 여행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대(144)에 신고, 이송. 택시를 이용하여 직접 이동하는 경우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Ambulanz)로 이동.
- 수술 및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병원에서 퇴원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항공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예) 맹장염
- 여행중 잔병이 생겨 병원을 방문하여야 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의 응급실(Ambulanz) 방문 또는 숙소(호텔) 주변의 가정의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시 유의 사항

운전자 필수 구비서류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유의 사항

- 유럽내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렌터카사를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를 렌트할 시 반드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주 운전, 운전중 통화, 안전벨트 비착용, 일방통행로에서 후진 등
- 차량 고장(사고)시 가장먼저 렌터카사에 연락하여 안내 및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렌터카 계약서, 보험증, 녹색카드, 사고 경위서(European Accident Report)등은 항상 이용 가능 한 곳에 보관·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자녀의 카시트도 꼭 렌트하여야 합니다. 예) 14세 미만/신장 150 Cm 미만
- 차를 렌트 할 시 고속도로 통행증(Vignette)을 구입하여 유리창 앞면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쉐ген지역으로 국경이 없어 고속도로통행증을 구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과태료 부과를 받는 우리 국민이 많습니다. 여행전 반드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스티커형 Vignette 또는 톨게이트 지분형)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과속 또는 고속도로 통행증을 부착하지 않아 적발시 과태료를 현장에서 바로 지불하여야 하며, 운행속도 감지기에 적발될 시 한국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우송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국가별로 자동차내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비품들은 반드시 사전 점검하시고, 경찰 검문시 구비위치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형광안전조끼, 구급약품상자, 안전삼각대 등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사고 발생시 먼저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 삼각형광판 등을 설치하여 사고 장소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 등 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후 바로 경찰(112) 또는 구조대/앰بول런스(119)에 신고.
- 경찰에 신고 시에는 반드시 사고발생위치, 사고발생차량내의 인원 및 부상인원을 파악하고 알려줘야 함.
-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구급차와 함께 병원까지 같이 동반하여야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음.
- 위 조치 후 차분히 자동차 주인인 렌터카사에 통보, 이후 사고차량 처리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음.

단순 접촉사고 또는 차량파손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사고 쌍방이 각각 사고 경위서(European Accident Report)를 작성하면 되나, 상대방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차량 손상의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한 경우 렌터카회사(보험회사)에 문의, 안내를 받아 사고경위서를 쌍방이 각자 작성하면 됩니다.
- 예) 상대측은 좌측에 작성, 본인은 우측에 작성하되 쌍방이 반드시 상대측의 경위서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보험번호,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기입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 본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사고경위서(2부) 서명 전 꼭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서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사고경위서에 서명 (단, 본인과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보험번호, 연락처 등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음.) 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만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송할 경우 반드시 등기 우송하여야 합니다.

Q & A

Q 택시에 컴퓨터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수증에 적힌 택시회사 전화번호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Q 기차에 물건을 두고 내렸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기차역에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통화연결이 잘 안됩니다. 대사관에서 기차역 분실신고 센터에 전화해 대신 신고해줄 수 있나요?

A 통화연결이 잘 안 되는데 대사관에서 연락한다고 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차 내에서 물건을 두고 내리거나 분실하여 물건을 찾고자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철도청 분실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성명, 기차번호, 출발지, 종착지, 분실물, 연락처 등 기입 필요)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고된 분실물을 철도청 분실센터에서 찾은 경우 분실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철도청 분실신고 홈페이지(영문): <https://www.oebb.at/infrastruktur/en/LostAndFound/index.jsp>

Q 샹트 길게 관광중 기차를 놓쳐 다음 목적지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시골이라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경제적인 손실은 좀 있겠지만 콜택시를 이용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파악한 후 휴대폰 인터넷을 이용해 구글에 지명과 Taxi를 입력하면 콜택시회사번호를 검색할 수 있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Q 오스트리아 철도청 사이트를 이용해 기차표를 온라인 상으로 구입했으나 E-Ticket 인쇄를 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E-Ticket을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으나, 이것은 티켓이 아니며 열차 내에서 티켓을 다시 구입하여야 하고 또 벌금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계속해야 하여 열차내에서 티켓도 새로 구입하고 벌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티켓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국에서는 환불 등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티켓구입회사(예: 오스트리아 철도청)의 아래 온라인 고객센터 서비스 사이트에 위 과정을 처음부터 잘 기술하심은 물론, 증빙서류(온라인 티켓 및 열차내에서 구입한 종이티켓 등)를 스캔, 첨부하여 온라인 티켓에 대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통화로 문의하고 본인확인 후 바로 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반드시 서면요구를 하셔야 하며 적어도 4주~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철도청 온라인 고객센터서비스(영문): <https://www.oebb.at/en/leistungen-und-services/kontaktformular>

Q 슬로베니아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줄 모르고 크로아티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여권검사 중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행은 모두 크로아티아로 떠나고 저만 혼자 밤중에 오스트리아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새벽 1시에 도착할 예정인데 새벽에도 여권을 만들어 주나요?

A 여행자의 신변안전과 여권 행정절차를 감안, 여행일정 일부 변경을 권고합니다. 일단 근처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다음날 일찍 안전하게 대사관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밤중에 이동 중 오히려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큼니다.

사건사고 발생시 연락처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Gregor-Mendel-Strasse 25

1180 Vienna

Austria

전화

+43-1-478-1991-68 (평일 09.00-17.00)

+43-664-8892-6758 (야간 및 공휴일)

이메일

austria@mofa.go.kr